

LS산전(주)

유럽서 'DC 솔루션 리딩 컴퍼니' 이미지 강화

-獨 하노버 메세 참가... 체험형 미디어로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소개



LS산전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세 전시회'에 'Integrated Solution in Campus Microgrid'를 메인 콘셉트로 스마트 에너지 분야 통합 솔루션 기술 역량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LS산전은 총 14부스(125m²) 규모의 전시 공간에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체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플랫폼 기반 고객 맞춤형 솔루션 등 3개 테마를 구성했다.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체험존은 LS산전의 스마트 에너지 대표 프로젝트인 서울대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에 적용된 솔루션을 게임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전과 공동으로 서거차도에 구축하고 있는 DC(직류)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축구 게임과 ESS 충전의 개념을 결합한 체험형 미디어를 통해 소개,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DC 전력기기 솔루션과 함께 PEBB(웹; Power Electronic Building Block)을 용량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Modular Scalable PCS(전력변환장치; Power Conditioning System)도 소개,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DC 솔루션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였다. 아울러 ▲차세대 배전진단시스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적용한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Cloud Monitoring Service) ▲컴팩트 AIS(공기절연개폐장치; Air Insulated Switchgear) ▲글로벌 배전반 기업인 리탈(Rittal)과 공동으로 제작한 배전반 솔루션도 선보였다.

LS산전 관계자는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와 DC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경쟁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전력과 자동화 사업은 물론 스마트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